



승리 날리는 불펜 제구력 '수준 이하'

한국 야구대표팀 안현민이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대한민국과 일본의 평가전 8회 말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솔로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국 야구대표팀 타자들은 2026 월드컵 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돔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평균 22.1세의 '영간'들로 채워진 마운드는 4만 관중의 함성 속에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과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2연전을 1무 1패로 마쳤다.

1차전을 4-11로 완패한 한국은 2차전 9회 말 2사에서 터진 김주원(NC 다이노스)의 극적인 홈런포로 마치 승리 같은 7-7 무승부를 거뒀다.

내년 1월 WBC를 향해 본격적인 향해를 시작할 류지현호는 이번 2연전을 통해 '타선 경쟁력 확인'이라는 수확물과 '투수들의 제구 난조 극복'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이번 평가전 최대 성과는 젊은 타자들의

평균 22세 영건 불넷 12개 남발 7실점 중 4점 밀어내기 헌납 정우주·박영현 빼곤 기대이하

국제 경쟁력 확인이다. 가장 먼저 안현민(Kt wiz)은 '젊은 거포'의 등장을 알렸다.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야구대표팀 감독이 경계해야 할 선수로 꼽았던 안현민은 1차전 선제 투런포에 이어 2차전 추격의 솔로포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다.

특히 2차전 8회 타석에서 안현민은 자신의 타구에 발등을 맞고도 좌중간으로 솔로 안타를 그리고서 절뚝거리며 베이스를 도는 투혼을 발휘했다. 또한 안현민은 2경기에서 불넷 3개를 골라내 선구안도 합격점을 받았다.

'국가대표 2루수 정근우의 후계자'로 주목받는 신민재(LG 트윈스)는 1번 타자로

야구대표팀, 1과 2차전 희비



10타수 4안타(타율 0.400) 1타점 2득점으로 팔필 날며 리드오프 고민을 덜어줬다.

3번 타자로 나선 송성문(키움 히어로즈) 역시 1차전 홈런을 포함해 9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2차전에서 2안타를 친 문현빈(한화 이글스)과 박해민(LG)이 하위 타선에서 활력을 불어넣었고, '대형 유격수' 김주원은 2차전 9회 말 2사에서 동점 홈런이라는 인생 경기를 펼치며 자신감을 얻었다.

여기에 김하성,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메이저리거와 한국계 해외파 선수, 김도영

타선은 경쟁력 확인 값진 성과 김주원 극적 홈런 11연패 막아 안현민·송성문 '초특급 해결사'

(KIA 타이거즈)이 합류할 내년 대표팀 타선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대표팀은 경험을 수확으로 얻었다. 이번 대표팀 33명 중 도쿄돔 경험이 있는 선수는 고작 11명이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말로만 들던 '압박감'을 직접 느낀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2차전 극적인 무승부로 선수들이 얻은 자신감은 덤이다.

한국, 일본, 대만, 체코, 호주 5개 나라가 다룰 2026 WBC C조 1라운드 4경기가 모두 도쿄돔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경험은 본선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타선이 희망을 봤다면, 마운드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류 감독은 이번 대표팀에 시속 150km를 날라드는 평균 연령 22.1세의 젊은 투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도쿄돔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틀간 허용한 불넷은 무려 21개며, 2차전에서는 7실점 중 4점을 밀어내기 불넷으로 헌납했다.

1차전 9불넷(사사구 11개)에 이어 2차전에서도 불넷 12개를 남발했다. 2차전 선발 정우주(3이닝 1불넷)와 2이닝을 출루 허용 없이 무실점으로 막은 박영현(Kt)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수가 제구에 애를 먹었다.

류 감독은 "시즌 때 구속보다 시속 5km 정도씩 떨어져 힘겹게 1이닝을 마감하고 내려오는 상황도 있었다"며 "공부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소집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연합뉴스

36초09 펌케 콕 이상화 신기록 12년 만에 깬다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우승

'빙속 여제' 이상화(은퇴)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 기록이 12년 만에 깨졌다.

펌케 콕(네덜란드·사진)은 17일(한국 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36초09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했다.

그는 이상화가 2013년 11월 17일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3-2014 ISU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작성한 기존 세계 기록(36



EPA=연합뉴스

초36)을 무려 0.27초 앞당겼다.

이상화의 기록을 같은 장소에서, 단 하루의 오차 없이 정확히 12년 만에 깬 셈이다. 이상화의 여자 500m 36초36 기록은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정식 종목 세계 기록 중 가장 오랜 기간 존속했다.

빙속 올림픽 종목은 남녀 500m, 1000m, 1500m, 5000m, 팀 추월, 매스스타트, 여자 3000m, 남자 1만m 14개로 이중 남녀 매스스타트는 포인트로 순위를 결정한다.



공수 철용성 대한항공... "이번 주 6연승도 짬"

프로배구 남녀부 1위 대한항공과 한 V-LEAGUE 2025-2026 한국도로공사 감독 체제 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과 도로공사는 이번 주 진에어 2025-2026 V리그에서 각각 6연승, 8연승에 도전한다. 대한항공은 21일 인천 계양체육

관에서 4위 OK저축은행과 대결한다. 대한항공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아우스사이드 히터 정지석(사진), 정한용, 아포지 스카이어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 임동혁, 세터 한선수, 유광우, 미들 블로커 김규민, 김민재 등 모든 포지션의 주전

선수들이 맹활약 중이다. 특히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한 정지석은 전성기 기량을 회복하며 공격을 이끌고 있다.

그는 16일 디펜딩챔피언 현대캐피탈과 방문 경기에서 양 팀 최다인 27점(공격 성공률 62.86%)을 기록하며 팔필 날았다.

대한항공은 9일 부산 원정 경기에 이어 OK저축은행을 다시 만난다. 정지석은 당시 경기에서도 22득점, 공격 성공률 68%를 찍는 등 공격을 주도했다. 반면 OK저축은행의 상황은 썩 좋지 않다. 18일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KB손해보험과 홈 경기를 치른 뒤 3

정지석 맹활약... 21일 OK저축은행 사냥 나서 여자배구 도로공사도 내일 IBK전 8연승 정조준

일 만에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을 만나는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여자부 1위 도로공사는 19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최하위 IBK기업은행과 방문 경기를 치른 뒤 23일 김천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홈 경기를 벌인다.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지음
AOSB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케'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